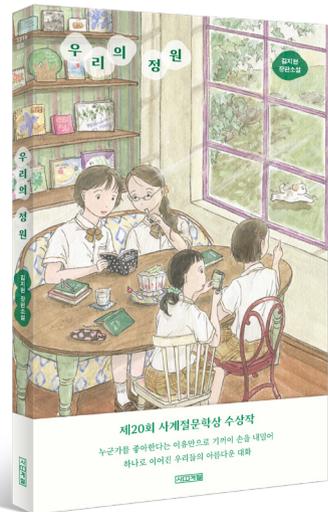

우리의 정원

작성 해마루중학교 정원진 선생님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
김지현 지음

■ 주제어 #취향 #소통 #관계 #SNS #아이들 #프로아나

■ 분류 청소년 > 청소년문학

■ 수상내역 제20회 사계절문학상 수상작

도서 소개

제20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정원에게 선뜻 다가와 온기를 주는 친구들, 그에 힘입어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간절한 소망에 귀 기울이는 정원. 그들이 보여 주는 따뜻한 소통과 변화는, 비록 대상은 다르더라도,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만들어지는 자유롭고 다정한 세계를 꿈꾸게 한다.

열일곱 살 정원에게 친구 관계는 늘 어려운 숙제다. 특히 학기 초, 아이들이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가고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초조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한다. 서로 취향과 생각이 맞으면 가까워질까? 하지만 정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인 아이돌 ‘에이세븐’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 남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정말 상처받을 테니까.

정원은 화면 속 에이세븐과 덕질 메이트 ‘달이’로 이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러던 어느 날, 달이가 계정을 폐쇄하고 사라지자, 정원의 안전한 세계는 무너져 버린다. 정원은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라는 달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실마리로 삼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너는, 어디에 있어? (출판사 제공)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3차시
읽기 전	생각 열기	1차시
읽기 중, 읽기 후 혼합	<1부 사막 너머의 낙원>	2~4차시
	<2부 파랑새를 찾아서>	5~8차시
	<3부 일만 번의 개화>	9~13차시

이 독서 지도안은 중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안입니다. 총 13차시로, 수업을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 수준이 높은 3학년인 경우 독서 시간을 줄이는 등 유동적으로 차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 ‘생각 열기’ 활동을 통해 도서 정보, 수업 진행 방식, 독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생각 열기 질문뿐만 아니라 도서의 소재인 ‘아이돌’을 게임과 접목시켜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책에 대한 생각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읽기 중], [읽기 후] 혼합 단계에서는 한 챕터씩 독서를 한 후에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 챕터당 3~5차시가 소요되고, 챕터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차시는 책을 읽는 시간, 이후 차시는 독서 지도안에 따라 소그룹 모듈별로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원』은 학교 안에서의 인간관계, 좋아한다는 감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이 한 번쯤은 느껴 봤을 감정을 정원의 시선으로 흥미롭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원의 이야기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지도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부디 이 독서 지도안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의 정원』의 매력을 200%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시

생각 열기

1. 도서 소개

- 도서의 소재 소개하기: 아이돌, 덕질(취향), 교우관계
- 도서 제목, 표지를 통해 도서의 내용 유추해 보기
- 도서 기본 정보 안내하기

2.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진행 방식 안내

- 한 챕터씩 읽고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활동 시에는 소그룹 모듈별로 진행함
- 한 챕터당 3~5차시가 소요됨(첫 차시는 독서 시간, 나머지는 활동 시간): 학년, 학생 수준에 따라 차시 조절 가능

3. 독서 방법 안내

- ① 아래의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등 표시를 하며 독서
 - 인상 깊었던 부분
 -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갈래인 부분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부분
- ② 독서 후에는 지금까지의 도서 내용 정리

정리할 내용: 인물, 장소, 주요 사건, 나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감상들

4. 도서의 소재와 관련된 생각 열기 게임

〈아이돌 이름 맞추기 릴레이 스피드퀴즈〉 (4인 1조)

- 1) 교사가 PPT를 활용하여 아이돌 사진을 보여 주면 한 명씩 돌아가며 3초 안에 이름을 맞힌다.
- 2) 한 명이 퀴즈를 맞힐 때마다 1점을 부여,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팀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 3) ‘우리 반 아이돌 박사’를 2~3명 정도 선정하고 최애 아이돌과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이유, 계기 등을 질문하여 학생들과 공유한다.

2차시

〈1부 사막 너머의 낙원〉 개인 독서 활동

1. 독서 방법 안내

- ① 아래의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등 표시를 하며 독서
 - 공감이 가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
 - 자신도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부분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부분
- ② 독서 후에는 지금까지의 도서 내용 정리

정리할 내용: 인물, 장소, 주요 사건, 나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감상들

2. 다음 수업 시간까지 〈1부〉 독서와 내용 정리를 모두 해 올 수 있도록 안내

■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기 (25분)

1. 각자 내용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소그룹별로 협의하여 <1부>의 최종 내용 정리하기
2.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말하기
3. 위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 후 소그룹별로 발표하기

구분	내용			
인물, 배경, 주요 사건 흐름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	팀원1	팀원2	팀원3	팀원4
떠오르는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 독후 활동 (65분)

1. 그놈의 '친구'가 뭐길래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가) 새로운 반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분주해진다. 서로가 어떤 타입인지 탐색하고, 어느 무리에 들어가 누구와 어울려야 할지 기민하게 자기 자리를 찾는다. 한 달이면 사실상 끝난 게임이다. 한두 명 정도가 더해지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학기 초에 만들어진 무리가 끝까지 가게 된다. (『우리의 정원』, 11~12쪽)

(나) 셋이 있을 때 하는 대화는 주로 이런 것들이다. 오늘 날씨 좀 덥지 않아? 한국사 수행 평가 다 했어? 아까 영어 쌤 기분 완전 안 좋아 보이더라. 뭐 그런. 상대가 누구여도 할 수 있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릴 가벼운 얘기들. (...) 나는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13쪽)

(다) 달이는 내 SNS 친구다. (...) 서로의 생김새도 모르고,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메시지만으로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맘껏 꺼내 놓을 수 있었다. 달이는 내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다 받아 주었다. 달이에게 털어놓은 얘기들은 어디에도 새어 나갈 걱정이 없어서 좋았다. 우리는 학교로도, 사는 도시로도 섞여 있지 않고 공통으로 아는 친구도 없으니까. (20~21쪽)

1) (가)의 반 아이들처럼 어떤 무리에 소속되려 노력한 적 또는 친구가 없으면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2) 우리는 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걸까요?

3) 정원의 입장에서 (나)의 '셋' 친구들과 (다)의 '달이'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할 기준을 찾고 인물들의 특징을 적어 보고 소그룹별로 발표해 봅시다.

기준	'셋' 친구들	'달이'
(예시) 친한 정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겉으로만 친구 (겉친)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고, 또 다 받아 주는 진짜 친구 (찐친)

4) 나에게 있어 '달이'처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를 1명(또는 1가지) 이상 생각해 보고, 그러한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 글에 나타난 정원과 '혜수'의 사이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말해 봅시다.

혜수가 미안해할까 봐 나도 혜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 자기 계발서나 역사책을 빌리기도 했지만, 교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캐러멜을 사는 것처럼, 혜수도 읽지 않을 책을 굳이 빌리는 걸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어색한 배려심으로만 빼거덕빼거덕 나아가는 관계인지도 모른다. (29쪽)

2. 참 어려운, 사람 사이의 관계

1)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 다시 혜수와 주원에게 눈을 돌렸다. 두 사람과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예상 가능한 대답만 한다. 하지는 대로 움직이는 AI가 된 것 같다. 내가 이 둘과 친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실은 어제 새벽 늦게까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봤어.

내가 흔히 말하는, 그 '덕후'야.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같은 앨범을 몇 장이나 사고, 온종일 음원 스트리밍을 돌리는 걸 이해해 줄까?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늘 그들을 떠올리고 찾아내는 나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 (...) 나에게서는 재미있고 중요하지만 상대는 시답잖아하며 금방 흘러버릴, 그런 얘기를 굳이 해야 하는 걸까? (16쪽)

(나) 나는 혜수랑 주원을 데리고 생일 카페에 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걸까? 나도 알 수 없었다. 이번 시험을 잘 친다면, 그래서 두 사람과 기분 좋게 놀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생일 카페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43~44쪽)

① (가)에서 정원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에 드러난 정원의 생각을 토대로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② (가)의 밑줄 친 부분 '나에게는 재미있고 중요하지만 상대는 시답잖아하며 금방 흘러 버릴' 존재가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한 명씩 말해 봅시다.

③ (나)에 드러난 정원의 마음 변화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④ 도서 49~51쪽을 읽고 정원에게 '달이'는 어떤 존재인지 정리해 봅시다. 또 50쪽의 '행복 뒤에 찾아오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달이와 정원', '아이돌(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토대로 추론해 봅시다.

구분		내용
정원에게 '달이'란?		
'행복 뒤에 찾아오는 것들'의 의미		
관계	'달이'와 정원	
	아이들과 팬	

3. 그래도 내 옆엔 항상 친구들이

1) 자신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친구'는 어떤 뜻인지 나만의 정의를 내려 봅시다.

2) 자신이 친구와 친해지는 방식을 말해 봅시다.

3) 현재 우리 반 친구(또는 예전에 사귀 친구) 중에서 자신과 친한 친구 1명을 말하고, 그 친구가 좋은 이유를 3가지 말해 봅시다.

4) 우리 반 친구 중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 1명과 친해지고 싶은 이유를 말해 봅시다.

5차시

〈2부 파랑새를 찾아서〉 개인 독서 활동

1. 독서 방법 안내

- ① 아래의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등 표시를 하며 독서
 - 공감이 가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
 - 자신도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부분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부분
- ② 독서 후에는 지금까지의 도서 내용 정리

정리할 내용: 인물, 장소, 주요 사건, 나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감상들

2. 다음 수업시간까지 〈2부〉 독서와 내용 정리를 모두 해 올 수 있도록 안내

6~8차시

〈2부 파랑새를 찾아서〉 소그룹 독서 활동

■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기 (30분)

1. 각자 내용 정리한 것을 토대로 소그룹별로 협의하여 〈2부〉의 최종 내용 정리하기

2.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말하기

3. 위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 후 소그룹별로 발표하기

구분	내용			
인물, 배경, 주요 사건 흐름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	팀원 1	팀원 2	팀원 3	팀원 4
떠오르는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 독후 활동 (105분)

1. 나의 페르소나, 우리의 페르소나

1) 아래의 글을 읽고 페르소나의 의미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봅시다.

인격(personality)은 그 자체의 정의로 볼 때 본래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 인격을 달리 포장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인격 가운데서 외부와 접촉하는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persona)’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데, 융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가와 같은 질문에 관한,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정의했다. 즉, 실제 자신의 본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 야마구치 슈,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중

2) 나의 페르소나는 몇 개인지, 시간, 장소, 상황별로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페르소나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나의 본 모습	
(예시) 혼자 집에만 박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최강 I (최강 내향형)'	
나의 페르소나	
상황 (시간, 장소 등)	상황에 따른 페르소나
(예시) 학교 체육 수업 시간	(예시) 귀찮음을 숨기고 운동을 열심히 하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
페르소나를 가지는 것의 장단점	
장점	단점

3) 등장인물들의 페르소나를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페르소나	
정원	학교	
	SNS	
혜수	학교	
	SNS	
상담 교사	학교	
	아파트	

4) 혜수의 SNS에 적힌 문구를 해석해 보고, 혜수의 SNS를 본 정원이 도망치듯 혜수의 SNS에서 빠져나온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구분	내용
문구	'프로아나 계/h155 ugw38/먹토O씹뽕O', '개말라인간', '뽕말라인간'
의미	
혜수의 SNS를 본 정원이 도망치듯 혜수의 SNS에서 빠져나온 이유	
(예시) 내가 알던 혜수(겉으로 보여지는 혜수의 모습)와 내가 몰랐던 혜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혜수의 은밀한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5) 아래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SNS(온라인 공간)의 장단점을 페르소나의 개념과 연관 지어 정리해 봅시다.

(가) 있잖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깨게 됐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아? (...) 그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다는 기분이 들어. 그럼 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들어가. 인터넷에는 늘 사람들이 있으니깐. (59쪽)

(나) 집으로 돌아와 트위터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 프로필 자기소개란에 프로아나 계정이라고 써 놓고, 프로아나를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들을 팔로우했다. 이걸로 될까? 아냐, 이거면 됐지. 내 정체성과 관심을 꾸며 내는 게 이렇게까지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니. (119쪽)

구분	내용
장점	(가) (나)
단점	(가) (나)

6) 아래는 BTS(방탄소년단)의 「Intro: Persona」 가사 중 일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들어 보고, 가사 중 '나'의 여러 페르소나가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My name is R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Yeah 난 날 속여왔을지도 뺨쳐왔을지도
 But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Dear myself 넌 절대로 너의 온도를 잃지 마
 따뜻해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깐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악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니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Persona

- BTS(방탄소년단), 「Intro: Persona」 中

2. 새로운 관계

[새로운 친구, 목요 독서회]

1) 목요 독서회 구성원과 그들의 공통점을 써 보고, 정원에게 목요 독서회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구분	내용
구성원	
공통점	
의미	

2) 만약 내가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을 만들지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모임 결성 계획서	
모임 이름	
모임 주제	
기간 및 장소	
예상 활동	
꼭 함께하고 싶은 친구	

[새로운 장소, 쿠쿠책방]

- 1) 도서 102~107쪽을 참고하여 '쿠쿠책방'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나열해 봅시다.
- 2)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1곳을 떠올려 보고 그곳이 좋은 이유를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 3) 자신의 방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또, 그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꼽아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나의 방 구조도〉

3. 우리는 친구일까?

- 1)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친함'의 기준과 친구들의 기준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사이에 세 사람의 독서 취향까지 알게 된 걸까. 지은이 그랬듯이, 이제 나도 좋은 이야기를 보면 그 애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걸 여태가 재밌어하겠단, 애는 나현을 닮았네, 이러면서. 어찌면 친한 친구라는 건 이런 건가? (101쪽)

- 2) 다음 글을 읽고 문단별로 질문지에 자신의 생각을 채워 봅시다.

(가) 늘 바쁜 주원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웃어 보였다. 주원과 나의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라면 저렇게 흔쾌히, 나만 빠지겠다는 말은 하지 못할 거다. 나 없는 데서 둘만의 추억과 비밀이 생길까 봐 불안해서, 재밌게 놀라는 말 따윈 하지 않을 거다. (46~47쪽)

(나) 교실로 돌아오니 주원의 자리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미 짐을 챙겨 심화반 자습실에 간 모양이었다. 비어 있는 자리를 보자 마음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복잡해졌다. (108쪽)

(다) 난 그동안 지은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했는지 궁금해졌다.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또 견뎌 낸 게 아닐까. 그랬기에 더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소모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게 아닐까. (97~98쪽)

문단	질문
(가)	'나(정원)'는 '나 없는 데서 둘만의 추억과 비밀이 생'기는 것을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나)	'나(정원)'의 마음에 가득 찬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다)	정원은 친구로부터 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까요?
(다)	'친한 친구가 내게 _____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란 적이 있었나요? 어떤 것을 바랐나요?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소모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3) 다음은 학교 상담 교사와 정원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제 팔로우는 끊어 냈으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 있죠. 우리는 이미 친구인데. 학교 안에서는 매일 같이 얘기하고, 매점도 가고, 급식도 먹는 사인데. SNS에선 친구가 될 수 없다니.”

“정원아, 친구는 그게 너란 걸 모르잖아.”

“그렇지만 그게 진짜 제 모습인데요.”

“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

“그래. 그리고 정원아, 친구 계정을 먼저 찾아낸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느끼는 것만큼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

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혜수의 계정을 찾아내면서, 새벽까지 도민한 끝에 팔로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심장이 쿵쿵 뛰었던 이유를. (112~113쪽)

4) 다음은 <2부>의 결말 부분입니다. 자신이 정원이라면 앞으로 혜수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상상해 보고 뒷이야기를 이어 써 봅시다.

차분히 숨을 골랐다. 지난번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요했다. 이걸 혜수를 속이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른 애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원이라면. 여태라면. 지은이나 나현이라면? 친구들의 얼굴이 스쳤다. 그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다.

나는 다시, 혜수의 계정을 팔로우 했다. (119쪽)

1. 독서 방법 안내

- ① 아래의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하는 등 표시를 하며 독서
- 공감이 가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
 - 자신도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부분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부분
- ② 독서 후에는 지금까지의 도서 내용 정리

정리할 내용: 인물, 장소, 주요 사건, 나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감상들

2. 다음 수업 시간까지 〈3부〉 독서와 내용 정리를 모두 해 올 수 있도록 안내

■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기 (30분)

1. 각자 내용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소그룹별로 협의하여 〈3부〉의 최종 내용 정리하기
2.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말하기
3. 위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 후 소그룹별로 발표하기

구분	내용			
인물, 배경, 주요 사건 흐름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	팀원 1	팀원 2	팀원 3	팀원 4
떠오르는 경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 독후 활동 (150분)

1. 행복을 찾아서

1) 도서 129~130쪽을 읽고 등장인물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행복'이란?
지은	
나현	
정원	
주원	
혜수	

2)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용기를 내어 조금씩

1) 정원은 자신이 에이세븐 팬임을 마침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전까지 정원이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를 두려워한 이유, 고백한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정원의 생각 변화를 정리해 봅시다.

정원이 아이돌 덕후라고 털어놓기를 두려워한 이유

순서	주변 사람들	주변 반응
1	소민 언니	
2	쿠쿠 책방	
3	친언니	
4	혜수	
5	엄마, 아빠	

정원의 생각 변화

2) 정원이 SNS, 목요 독서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에이세븐 팬임을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예시) '나'를 숨기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3) 자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소재로 일기를 써 읊시다.

알고 보면 내 삶에서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나를 아껴 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는 자주 잊고 만다. 왜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까? (170쪽)

〈가까이 있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4) 우리 사회에는 정원과 달리 자신의 본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내 정체성을 깨달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나에게 학교는, 바다 위에 미역이 흐물흐물 떠도는 것처럼 혼자 다니고 혼자 밥을 먹는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체성을 깨달은 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친구?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동네로 이사를 온 후 나는 친구가 없었다. 선생님? 선생님께 이야기하긴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교회? 교회는 무서웠다. TV에서 보았던 교회는 동성애자와 우울증 환자를 기도원으로 끌고 가 성령 치료를 하는 곳이었다. 엄마? 엄마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도 독실한 신자인지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를 치료하려 들까 봐 무서웠다. 그렇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혼자서 그 고민을 숨기고 지냈다. 그때부터 흐르는 물에 댄을 올리듯 차근차근 마음에 댄을 쌓아 올렸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 성소수자부모모임, 『커밍아웃 스토리』 中

(나) 비건은 동물로 만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이자 소비자 운동이다. 고기는 물론,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 달걀, 생선도 먹지 않으며, 음식 이외에도 가죽, 모피, 양모, 악어가죽, 상아 같은 제품도 사지 않는다. (...) 무슨 주의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말로만 떠들어도 쉽게 탄로나지 않는다. (...) 페미니스트도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힘들다. 환경 단체에서 일하는 차경 환경주의자들도 손쉽게 합리화를 한다. (...) 비건은 그렇지 않다. 비건만큼 본인이 표방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좁은 주의자도 없다. 따라서 비건만큼 '커밍아웃'을 했을 때 실제 생활에 파급력이 큰 경우도 드물다. 최소한 하루에 세 번, 매끼마다 스스로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직접해보면 주위의 관심 혹은 '감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남을 체감할 것이다.

- 김한민, 『아무튼, 비건』 中

① (가)와 (나)에 나타난 사람은 각각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내용
(가)의 문제	
(나)의 문제	
(가), (나)의 공통점	예시) 두 사람 모두 소수자이다. 본모습을 숨기며 살아야 한다.

② 도서관에서 소그룹별로 성 소수자, 비건을 주제로 한 책을 찾아 읽어 보고, 책에 나타난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아래 표를 함께 채워 봅시다.

성 소수자 관련 도서	비건 관련 도서
성소수자부모모임, 『커밍아웃 스토리』	플로랑스 피노, 『비건』
지니 게인스버스,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보선, 『나의 비거니즘 만화』
송경아, 『누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든』	박소영, 『청소년 비건의 세계』
베키 앨버탈리, 『사랑은 오프비트』	미지수, 『지속 가능한 삶, 비건 지향』
케이슨 캘린더, 『킹과 잠자리』	김한민, 『아무튼, 비건』

구분	내용
책 제목, 저자	
읽기 전 알고 싶은 내용	
읽기 중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읽기 후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	
감상문	

③ 누구나 본인의 모습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 이젠 멀게 느껴지지 않아

1) 정원은 에이세븐의 콘서트에 가게 됩니다. 콘서트장에서 보는 에이세븐과 휴대폰 화면으로 보는 에이세븐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2) 도서 171~173쪽을 읽고 정원이 아래처럼 느낀 이유를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건 슬프지도, 서럽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이걸로 됐다, 충분해, 하는 느낌이었다. 살면서 이만큼 충만하다고 느껴 본 적이 또 있었을까? (173쪽)

예시) 온라인에서는 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 에이세븐도 정원 자신과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본 이후로 에이세븐과 정원과의 간극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4. 건강한 관계

1) 책에서 ‘인간관계(친구 관계)’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쪽수	인물	인간관계(친구 관계)에 대한 생각
113쪽	정원	
148쪽 ~ 151쪽	쿠쿠 책방 주인	
	정원	

2)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이어지는 방법을 안다. 꾸준히 밀고 나가 한 번은 가닿을 수 있는 길을 안다. 그 길이 모두에게 똑같진 않을 거였다. 나는 낙원으로 향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162쪽)

(나) 나는 가지고 태어난 온기가 많은 사람들만 그만큼의 애정을 나눠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일정한 온기의 애정을 널리, 꾸준히 나눠 준다는 건 끝없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184쪽)

① (가), (나)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도 타인도 잃지 않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말해 봅시다.

② 도서 162~169쪽을 읽고 정원에 대해 있어 ‘낙원으로 향하는 나만의 길’은 무엇이었는지, ‘낙원’에 이르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친구들과 말해 봅시다.

③ ‘낙원으로 향하는 나만의 길’이 자신에게도 있나요?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목록〉

3) 도서 182~185쪽을 읽고, 여레와 정원이 건강한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4) 제목 『우리의 정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친구들과 논의해 봅시다.

5) 마지막으로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